

### ■ 영상택배 시즌2 - 일곱 번째 이야기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회고전"

MMCA Deoksugung Exhibition  
Park Rehyun Retrospective: Triple Interpreter

##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삼중통역자

국립현대미술 덕수궁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중인 <탄생 100주년: 박래현, 삼중통역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운보 김기창의 아내이기에 앞서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박래현, 회화, 태피스트리, 판화라는 세 가지 매체를 넘나들며 연결지었던 작가의 예술세계를 만나보시는 시간을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장근범 개인전  
이런 가족 같은 가족

2020. 10. 14. 수 - 11. 21. 토

여는시간 10:30~18:00 일. 월. 화 휴관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자동차길 16-5) 전화 063. 905. 2366

초기 홍보자료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우리 연구원 장근범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서학동 사진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20)**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작업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고픈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21일 전에 전주에 오시면 서학동 사진관을 들리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만나보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매주 일,월,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의전화 / 063-905-2366**

## ■ 역사 속의 오늘

### 43년 전 이리역의 두 얼굴 - 1977년 11월 11일



1977년 11월 9일 인천을 출발하여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주식회사(현재 한화)의 화약열차는 10일 11시 31분, 이리역(현재 익산역)에 도착했으나 후술된 사정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11월 11일 밤 9시 15분,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폭발사고를 내고 말았다.

폭발사고로 지름 30m, 깊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하여 59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및 경상자가 1,158명에 달하였으며, 1,647세대의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중요시설물의 피해도 컸다. 이리역 역사(驛舍)를 비롯하여 구내의 객화차 사무소, 보선사무소 및 역 구내에 정차중이던 117 량의 열차가 파괴되었고, 선로 1,650m가 파손되었으며, 주택 675 채가 완파, 1,288 채가 반파되었다.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의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변 1km 이내로 부서진 철도 레일 및 객화차의 파편이 날아들었다. 또한 이리시와 인접한 익산군 오산면, 황등면, 삼기면 및 김제군 백구면 등에서도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고, 충남 논산군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사고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호송원 신무일씨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밤에 열차 안에 켜놓은 촛불이 다이너마이트 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 원인이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안전수칙을 무시한 개인의 단순과실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총체적 난국 수준인 인재(人災)였다. 원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폭약과 뇌관은 함께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 원칙이 무시되었다.

또 화약류 등 위험물의 경우 역 구내에 대기하게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기본 원칙도 무시되었다. 철도역의 화차 배정 직원들이 급행료를 챙기느라 화약을 실은 화물열차를 역 구내에 40시간 동안 대기시켰다. 이 급행료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즉시 통과돼야 할 화약 실은 기차가 마냥 역에 '대기'하게 됐다. 호송원 신무일의 증언은 당시 언론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화차배정담당 역무원들에게 1인당 3백~5백원씩 주었다.” (1978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더하여 역에서 오래 머무른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다음과 같은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전날 (10일) 밤 10시 25분에는 출발을 시켜야 하는데 2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김제로 가는 비료 화차를 바꿔치기 해 먼저 보냈다.”(1978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

결국 '급행료'라는 관행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사고를 불러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어둠의 이면에 나를 던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이리역의 철도검수원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화재 현장까지 득달같이 달려갔다. 물이 없어 모래와 자갈을 맨손으로 집어던지며 불길을 잡으려했던 그들은 불이난 곳이 다이너마이트를 신고 온 열차임을 알고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고 그리도 사랑하던 철로 위에서 숨을 놓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리역 운전조역(運轉助役)으로 근무하던 송석준도 있었다. 그는 폭발 직후 폭풍에 휘말려 나가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정신을 차린 그 머리 속에 들어온 것은 잠시 뒤 이리역에 들어올 특급 열차였다. 그는 1킬로미터 가까이 내달린 끝에 특급 열차가 눈에 들어오자 옷을 벗어 흔들었다. 천만다행히도 특급열차는 송석준의 몸부림을 본 후 멈췄고 덕분에 6백여 명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불귀의 객이될 뻔했으나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날 이리역에는 '급행료'를 주지 않는다고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찬 열차를 구내에 머무르게 한 돈에 눈먼 악귀도 있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불붙은 화약 열차에 달려가 모래를 뿌린 일곱 명의 검수원들 (이리역에서는 모두 16명의 철도원이 순직했다)처럼, 폭풍에 휘말려 실신하고도 일어나자마자 기를 쓰고 달려가 옷을 벗어 흔들 철도원처럼 말이다.

43년 전 이리역의 폭발사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 다를 바 없이 악귀와 선인의 복마전이 아니었을까?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여섯 번째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돌구멍절”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암암** | 이토록 좁은 공간에 어떻게 법당을 열었을까? 온통 바위에 둘러싸여 마치 고압선에 오른 듯 아주 센 기운이 감도는 곳이다. 바라만 보아도 전신이 짜르르할 정도다.

천왕문을 비집고 들어가자 해발 750m의 돌구멍절이 별천지처럼 나타난다. 비록 10평도 아니 되는 지극히 협소한 터지만, 나름대로 공간 활용을 잘하였다. 먼저 까마득한 절벽 중간에다가 손바닥 몇 장 정도의 터를 가까스로 조성한 다음, 남북 선상으로 나직한 축대를 쌓아 2단으로 나누었다. 나지막한 기와 울타리가 위아래의 터를 구분한다.

위쪽 터에는 대응전 역할을 하는 중암이란 법당을 제법 규모 있게 세웠다. 그 오른쪽에는 '천태난야天台蘭若' 와 '삼성각三聖閣'이란 현판을 이마에 내건 작은 부속 건물 두 채가 버랑을 향한다. 난야란 말은 절을 뜻하는 범어 '아란야Aranya'의 음역音譯이다.

중암암 자리에서는 고려 시대의 전형적인 어골魚骨문양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다량 출토되었다고 한다. 중암암이 천년 고찰이라는 뚜렷한 증거물이다. 그리고 땀방울을 식히며 앞마루에 잠시 앉아만 보더라도, 보리심菩提心이 절로 이는 신비한 암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만난 스님에 따르면, 중암암은 절을 지키는 신장의 기가 하도 역세서 영가靈駕들이 찾아들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 사찰들과는 전혀 다르게 철야 기도나 천도재, 49재 등을 결코 지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어쩌다 이곳을 찾은 스님들 역시 신장이 받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 못해 제 발로 내려가고 만다. 근래에는 은혜사의 부주지를 겸하는 태관泰寬스님이 주석 중이다.

영가들의 접근조차 금하는 중암암 신장의 드센 기운 때문일까? 그래서 사천왕문을 상징하는 이곳의 천왕문에는 사천왕의 그림 한점도 내걸 이유가 없고 천왕문이라는 암각마저 필요 없었으리라.

법당의 한쪽 끝에 위치한 돌샘이 장군수다. 장군수는 지금도 시원스레 솟아 부처님께 올릴 물로만 쓴다. 그러나 이 샘물에도 탐욕을 경계하는 전설 하나가 깃들었다.

이 샘에서는 본래 물이 아닌 쌀이 솟았다. 돌구멍절에 사는 스님을 위한 쌀이라서 아침마다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솟아 나왔다. 스님은 부처님 덕분에 탁발도 생략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힘을 기울였는데, 어느 날 산적 하나가 이 절에 들렀다. 마침 쌀이샘솟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산적은 드디어 욕심에 사로잡혀 스님을 죽이고 돌샘의 구멍을 더 크게 뚫었다. 그러자 샘에서는 쌀 대신에 피가 솟구쳤으며, 갑자기 바위틈에서 불어온 바람에 맞아산적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철야 기도가 전혀 없는 탓에 중암암은 7시 반이면 저녁 예불이 끝난다. 그러면 곧바로 법당의 문을 걸어 잠근다. 암자의 영험한 기운을 탐하는 무속들의 번잡스런 출입을 금하기 위한 조치란다.

풍수지리로 보아 이곳은 연소혈燕巢穴에 해당하는 명당이다. 까마득한 절벽에 제비집처럼 달라붙은 형상을 한 혈이다. 수행자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터다. 사방에 맑고 빼어난 기운이 가득 넘치는 자리다.

이렇게 중암암은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자들을 위한 암자다. 그래서 일찍이 스무 명이 넘는 사법고시 합격생을 배출해 냈다고 한다. 멀리 삼인암에서 무예를 닦으며 밤마다 이곳에서 기도를 올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경우를 빌려 보더라도, 이곳은 분명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일곱 번째 이야기 “벼랑끝의 해우소”로 여러분 곁을 찾아 오겠습니다.